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3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5. 27(금) 14:02~16:43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진희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3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정족수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 즉, 8인 이상이 참석하시어 회의를 개최하고, 8인 이상이 계속 참석하셔야 회의가 유지됩니다. 위원님들 중 회의에서 이석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의 접속이 끊어져서 8인이 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공모사업결과와 보고안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행할 논의안건까지 여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일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회의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조용주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하고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 18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12인 위원님들 중에 3인이 불참하고 9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전차(前次) 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31차 전체회의에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32차 서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2개의 안건도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 결과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949호 2022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정형사업 추가공모 결정의 건 외에 총 9건의 의결사항이 회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5쪽과 같이 9개의 의결사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49호 2022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정형사업 추가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의 2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정형사업 추가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년 정시공모를 추진했던 8월, 9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술위와 협력기관이 MOU를 통해서 예술가를 파견하는 지정형사업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통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협력기관들과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확정된 지정형 6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4개 레지던시, 연극분야 1개 레지던스 그리고 전통예술분야 프랑스 세계문화의집입니다. 참고로 9페이지의 예산은 저희가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비용이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이와 별도로 협력기관으로 지급을 합니다.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63건이 접수되었고요. 5월 17일 심의를 통해서 최종선정자 1인과 협력기관에 보낼 후보군 12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형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 지정형사업은 MOU체결 내용과 기관 간 협의사항에 따라서 선정방식이 조금 상이한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과정을 저희가 진행하지만 베타니엔스튜디오나 HIAP, 에이스피탈 등 3개 레지던스는 예술위원회에서 모집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5~6명 정도의 후보군을 선정한 후에 협력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공모 시에 구성된 전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또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신청서 접수 후에 행정적인 부

분만 검토해서 협력기관에 보내고 그쪽에서 최종선발자를 선발하는 프로세스로 운영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문화의집에서 선정한 결정내역이 도착해서 자료로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아라운호와 세계문화의집 최종선정자 발표 그리고 나머지 3개 레지던스는 후보군을 협력기관에 보내고 최종선정이 되면 다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요청 드렸습시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시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자료 6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셔서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백 위원** : 9쪽에 지정형사업 세부목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국제교류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의 기세가 완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관심과 재개 의지가 높아보이는데요. 문학 분야 2022년도 지정사업 11개 중에서 7개가 미운영된 배경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현재 레지던스 측에서 올해는 조금 운영이 어렵다고 회신을 주신 레지던스들입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국내 쪽이 아니라 관련 국가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홍태림 위원** : 아카데미아 텔린폼뽀유또 지원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 분석이나 분석결과 문제가 있다면 향후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문의는 여러 건 있었는데 막상 지원하신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도 협력기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다음 공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프로그램 후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 드릴 계획입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잔여예산이 생긴 것은 어떻게 활용되게 되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잔여예산은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기존 후보군 지원이라든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신규 레지던스 사업에 조금 더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는 협력기관과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하반기 안에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추가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반대가 없음을 확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제950호 2022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역시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에 공동기금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2020년도 10월에 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DutchCulture 간에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파트너 국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사업설계와 MOU체결까지 그리고 2차년도는 사전리서치를 지원하고 3차년도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이 3차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공모의 배정예산은 총 5억 5,200만 원이고요. 4월 7일까지 28일까지 접수를 통해서 총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괄기획자를 선정했던 심의위원과 사업의 총괄기획자 2인을 심의위원으로 당초에 구성했는데요. 기획자 2인과 연관된 사업들이 접수되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2인을 제척하고 5인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기금사업에서는 파트너의 역량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DutchCulture 측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제공해 드린 바가 있고 전체적인 심의는 지난 1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상호적인 교류나 DutchCulture와 함께 제안을 했던 포용과 혁신이라는 주제에 잘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았어요. 총 1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되면 6월 초에 발표하고 DutchCulture에도 상기 내용을 공

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의자료 17쪽에서 29쪽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사전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 제출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3개의 의결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논의를 확정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1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52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53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안건번호 제951호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정시공모 때 의결을 받아 신청·접수를 하였던 사업들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심의의 대상건수의 고려와 심의기간 등을 고려해서 3월 29일에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총 272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필수자료 미제출 등 행정결격 35건을 제외한 237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연극의 신작 대본들을 발굴하는 사업과 창작뮤지컬의 음악과 대본을 매칭해서 지원 발굴해서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4억으로 연극은 작품 당 최대 3,000만 원, 창작뮤지컬은 작품 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작뮤지컬은 작가와 작곡가가 매칭해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담 심의위원회체도로 운영되었고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32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창작뮤지컬 분야는 지역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심의위원 풀에서도 그렇고 뮤지컬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예심은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2개월간 재택심사를 진행하였고요. 그 가운데 심

의위원별 합산평균평점이 75점 이상인 대상 작품들을 2차 본심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건수는 연극이 1차 예심이 189건, 창작뮤지컬 48건 그리고 2차 본심에서 연극이 52건, 창작뮤지컬이 26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은 총 21건입니다. 본 사업은 작가와 작곡가의 이름이 모두 지워진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의 예산 중 3억 9,600만 원이 지원결정 되었고 연극분야의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3월 4일에 별도공모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의결 받아서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해외진출이 확정된 해외 협력 파트너와 공동제작, 초청공연, 라이선스 공연작품 지원을 통해서 창작뮤지컬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단계의 지원들도 했었는데요. 의결 받을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업에 대한 기능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산이 증액된 관계로 그쪽에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진출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예산은 2억 7,000만 원이었고요. 지원규모는 작품 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적격자지정방식을 통해서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역시 이 분야도 창작뮤지컬 분야라서 서울,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배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은 기획·제작 그러니까 해외의 라이선스 수출이나 창작뮤지컬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로 우선 구성하고요. 음악과 극작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2인의 전문위원을 모셔서 구성하였습니다.

총 접수는 7건이 되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1.2배수 정도인 4건 정도를 2차 인터뷰 심의에 올렸으나 1개 사업이 대만 등의 코로나19 확산 등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터뷰심의 직전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서 총 3건이 인터뷰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3건 모두 충분히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결과 3건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5월 30일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3월 4일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공모가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고요. 본 사업의 목적은 작곡가와 극작가가 창작오페라의 대본과 음악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놉이나 몇 개의 곡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5개 작품이 결정되게 되면 2023년도에 실연심의회까지 자동진출이 돼서 최종 심의를 받아서 본 공연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은 1억이고 2,000만 원씩 5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전담심의위원제도로 구성되었고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60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심의건수로 되었고 1차 서류심사를 2022년 5월 17일에 진행하였고 그중에 9건을 2차 인터뷰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5월 24일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 5건의 작품이 결정되었고요. 작품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동

의하에 1건이 본 심의에서 필수제출 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의견을 들어 행정결격 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오늘 의결이 되면 5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승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30쪽부터 49쪽까지 공연예술 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사업 그리고 회의자료 50쪽에서 57쪽까지 공연예술 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사업 그리고 회의자료 59쪽에서 66쪽까지 공연예술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 등 3가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3개의 의결사항을 함께 논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혹시 미처 말씀하지 못한 의견이나 추가의견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3건 모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안건이니만큼 의결로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의결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3가지 의결안건을 모두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없으실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제952호, 제953호 3개 지원 사업에 대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떤 의안이든지 반대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시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951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사업 심의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52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53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954호 2022년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안건번호 제954호 2022년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

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예술가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30억으로 증액되면서 일부인 3억 원을 별도공모로 추진하기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공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모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요. 또 당시 3억 원에 대한 별도공모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차별화로 청년예술 TF의 미래예술제언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70페이지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예술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미래예술제언 주제와 관련된 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예술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민간경상보조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 기획주체는 붙임2에 있는 청년예술 TF 미래예술제언에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단일 및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자격요건으로는 단체 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선정 우대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의 선정자인 경우는 신청불가 하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필수요소로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50% 이상을 청년예술가 참여 사례비로 편성하고 사례비는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예술가의 기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사업내용 및 형태는 청년예술가 교류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참여 예술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다양한 방식의 사업형태가 가능해서 청년예술가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지원항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편성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추진방식은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전담심의위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단체 및 참여자의 역량 30%, 사업의 우수성 및 효과성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40%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사업 공고문이고요. 77페이지에는 청년예술 TF에서 작성한 4페이지 분량의 미래예술제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결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속에 있었습니다만, 회의자료 68쪽에서 80쪽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흥태림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흥태림 위원 :** 제가 지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서 논의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0억이었던 아르코생애 첫지원사업이 30억으로 증액되었고 그중에 3억을 별도로 할애해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국

민참여예산제를 청년 대상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억이 모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라서 청년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용비도 많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청년참여예산제로 3억을 꾸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참여예산제는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술인캠프와 청년참여예산제를 합친 신규사업으로 풀어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청년예술 TF에서,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그렇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작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간담회를 해 보니까 청년예술인들이 지역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청년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고민을 나누는 것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사업이나 기관이 없는 게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년예술 TF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억을 네트워크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청년예술 TF에서 미래예술제언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미래예술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만든 것인데요. 이 미래예술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설계되었다는 점이 기존 예술위원회 사업들과 차별이 된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공공예술사업과 구분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은 청년예술 TF에서 논의할 때 총 3억을 1억 규모의 선정건수 2개와 5,000만 원 규모의 선정건수 2개로 해서 나가면 조금 더 지원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의미 있고 규모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해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1억이나 5,000만 원 단위로 몇 개의 사업건수만 나오게 된다면 너무 장벽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원액의 규모를 지금처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조금 낮추고 선정건수를 늘리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양질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여러 건을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늘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전담심의위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수성상 전담심의제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문화일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2인씩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전담심의위원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참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지원액의 규모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흥태립 위원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담심의제를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에 대한 과정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반 쪽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해서 구성된 배수로 구성하면 어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2가지 질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적절한 규모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무 쪽에서는 여러 건을 선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요. 청년 TF와 이른바 청년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장 정확하게 할 현장 논의기구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네트워크 결과를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

견을 내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란 위원**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새로 지원사업이 생길 때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총 30억 규모의 사업은 3년 정도 했던 지원신청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경쟁률이 예상도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도 하였던 것인데요. 사실 3억 별도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로 별도공모를 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수요조사를 하기보다는 청년예술 TF의 기본적인 논의과정 속에서 사업의 성격,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별도의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없었고요.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예술가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사업개선 연구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청년예술가들의 의견은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원신청 수요와 연결되는지는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런 것 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근거는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와 어떤 수요가 있느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묻은 것 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규모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전부 다 고려하지 않고 아주 큰 사업 중심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적절해야 할 텐데요. 그때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정유란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추가해 주세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저희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원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 이 되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경쟁률 과다가 예상돼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로 하면 3:1이나 5:1 정도의 경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인력개발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예술가의 집 1층 회의실 안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임감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해당 본부장 4명이 함께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력개발원장 인 오영주 원장이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저희들은 이 사업의 신청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

동안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을 정시공모 때와 별도공모로 나눠서 추진을 한 경험을 보면 정시공모와 동시에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이 나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5:1정도로 크게 높지가 않은데요. 별도공모로 나갈 때는 정시공모 때보다 몇 배 많은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예술가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도 별도공모로 나갈 것으로 인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산해서 여러 건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률을 낮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낮춘 배경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원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저희도 부서에서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 TF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 문제 관련해서 별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원예술의 경우처럼 많은 신청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확신은 할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다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의 수요 등을 파악해 보고 차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지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담심의위원 구성에 관해서 문화일반위원님들께 위원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을 모시고 심의위원으로 모시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제안해 주신 바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TF에서 작성한 제안을 보면서 이런 관점이 그간 예술위에서 부재했던 관점에 대해서 많이 짚어준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담심의위원을 꾸릴 때 어떻게 보면 예술계를 넘나드는 혹은 예술계 밖에 있지만 청년의제나 사회적 불평등, 인권의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계속 발언을 해 왔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술위가 청년이나 젠더, 지역, 연령 의제에 대해서 차별의 문제들이나 불공정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을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연령, 성별, 경력 등 4대 차별요소는 성평등소위의 연구에서도 짚어진 바가 있어서 그렇게 전담심의위원들을 기존과 다르게 구성하는 방안이 이 의제에 적합한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모두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를 마쳤고요.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논의에 앞서 전체 논의를 압축해서 설명드리자면, 예산을 작년에 늘리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참여예산제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수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의도가 적어도 예술지원에 있어서 사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완성된다고 하는 무거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시 시범사업 형태이니 이런 시범사업 형태들이 좋은 전례를 구축해서 보다 좋은 사업이 구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진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회적 의제라든가 인

권문제, 차별이나 불균형 등을 예술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구현되는 심의제도 또한 필요하겠다는 지적 역시 위원회 전체에서 달게 받으면서 지금 논의된 내용들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형식의 주석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시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손도 들어주시고 찬성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가 없고 대부분 찬성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그 2가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제955호 2022년도 다원예술 창작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55호 2022년도 다원예술 창작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3페이지부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원예술 TF를 통해서 지원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셔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지원신청 접수를 하고 지원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지원신청건수가 833건입니다. 준비지원에 388건, 발표지원 445건으로 매우 많은 신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심의를 위해서 전담심의회를 적용했고 각 유형별로 심의위원 5인씩 모셔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별, 연령, 지역은 84페이지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골고루 안배가 되었습니다. 신청건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들께 사전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만 했고요. 실제 심의는 5월 18일과 5월 1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창작발표지원의 경우에는 인터뷰 심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33건 중에 총 31건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준비지원에 18건, 발표지원에 13건이 선정되었고요. 동일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사업의 경우에는 총 24건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많은 건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수를 많이 선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은 지역균형지원제도 부분입니다. 심의위원들께 사전 안내를 드렸습시다만, 전수검토를 해서 사전에 채점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본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작발표지원의 인터뷰 심의의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 상위 18개 단체를 인터뷰 했는데 그중에 비수도권 사업이 단 1개밖에 없었고요. 준비지원의 경우에도 85점 이상 23개 사업 중에 비수도권 사업이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균형체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전검토의견을 주셨던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심의총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심의총평이 심의 종료 후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회의 전일 심의총평을 보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원 심의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준비지원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발표지원의 경우 심의총평을 작성해 주신 분이 심의위원 5인 전체의 의견보다는 위원으로 참여한 예술가 본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술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을 드렸고요. 이후에 5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해서 총평을 수정하는 회의를 어제 오후에 진행했습니다. 총평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회의자료 81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하시고요. 특히 123쪽부터 126쪽까지가 지원심의총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랜 고민 후 나온 총평이라 그런지 우리가 짚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점 이상을 받은 많은 사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런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제 다원예술은 생소함을 넘어서서 가장 전방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다원예술을 추구하시는 모든 지원자분들에게 존경의 박수와 응원의 마음을 듬뿍 보냅니다.” 애정과 전문성 그리고 이를테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의미까지 전부 다 담은 훌륭한 심사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126쪽을 보면 “계획만 통과되면 실행되고 사라지는 1년짜리 수행들은 아르코도 정부를 상대로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고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라는 근본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 때문에 책임감 없는 공허한 실행과 계획들이 세상을 떠돌아 다닙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여기에는 다원예술만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안에서 새로운 동력을 내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라는 생각을 짧지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지금까지 지나온 형식 앞에서 고립되는 것보다 다양한 시도와 교류를 통해 모두가 이 제도의 플레이어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이곳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원예술이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지난 함 등이 심의총평에 정말 잘 집약되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짧게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일단 심의총평이 좀 늦어져서 담당부서의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제 심의위원 간에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가 되었고 최종 리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모든 심의위원들이 동의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6월 2일 다원예술 온라인포럼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가 나가도록 해서 포럼 이후에는 TF 마무리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고생 많으셨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2차 심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셨는데요.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온라인 심의를 줌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줌으로 진행하는 것을 공지했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논의 중에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안건번호 제955호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956호 2022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논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본 안건 보고에 앞서서 아까 정종열 위원님 질문에 제 답변이 부족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지원신청자들에게 저희가 인터뷰 방식을 공지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줌으로 참여하시도록 했고요.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실제 심의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회의자료 1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난 2월 위원회 회의에서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셨고요. 다원예술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3주 동안 저희가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실제 심의회의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 동안 심의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30페이지의 접수결과는 준비지원 327건, 발표지원 308건, 창작협력단 6건 등 총 64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401건 대비 큰 폭으로 접수가 늘어났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 사업의 장르보다는 대상 지향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각 7개 장르별로 나눠서 심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 7개 장르에 각 5인씩 35인이 참여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전담심의회위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35인의 심의위원들은 지역 31.4%, 여성 65.7%, 40세 이하 40%로 안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의는 3주 동안 진행되었고요. 선정결과는 13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60건에 지원금액으로 14억이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작협력단 1건을 포함해서 60건이 선정되었고요. 다원예술과 마찬가지로 이 선정결과에서도 지역균형제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장르별로 심의를 나눠서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7개 장르에 준비와 발표 트랙을 나누면 14개 분야로 선정되었는데 지역균형제도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총 14개 분야에서 선정건수가 4건 이하, 그러니까 1건에서 4건까지만 선정할 수 있었던 게 총 11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선정건수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 안에서 지역안배를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은 작년도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신작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지향하는 사업이다보니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기존 공개 작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기존 공개 작품을 포함하다보면 아무래도 큰 단체나 유명한 단체들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개작품의 선정건수를 전체 선정건수의 50% 이하로 발표유형의 경우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선정결과는 발표 유형의 총 23건 중에 신작이 16건으로 약 70% 비율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 3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자료 128쪽부터 172쪽까지 참고하시어 의견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약간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지역할당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공지가 나갈 때 지역할당제가 있다고 나갔는데요. 정작 결과발표에는 지역선정률이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지원대상 결정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박경주 위원** : 예. 지금 연달아서 다원예술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가지 사업 모두 지역안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2개 지원사업 내에서의 지역할당 반영과 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박경주 위원** : 예.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할당을 하기로 사전에 공지가 나가서요. 갑자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가 약간 우려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균형제도는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룰이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 사업이 공고가 나갔을 때는 “지역균형제도를 적용해서 28% 이상을 선정한다.” 이렇게 공지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셨나요?

**박경주 위원** : 예,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공지에 “안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기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하실 때 그것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할당제라고 하는 지역최소보장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들 전체의 동의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먼저 해 놓고 합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은 이상 점수로서, 물론 신청한 곳이 적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이런 심의 틀 안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아르코의 어려움도 알지만 적어도 “먼저 이 정도가 왔는데 이 정도는 뽑아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숙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역균형지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28% 이상으로 선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디테일한 부분이 가점제도라든가 특수한 형태로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에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고를 드린 2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정준화 부장님, 공고가 나갈 때 ‘지역균형지원제’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고 나왔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공고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역할당제’라고 명시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창작지원처럼 아예 균형지원 부분을 안 보는 지역사업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분이 보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지원제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권고사항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실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거의 반드시라고 생각하면서 해 왔습니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은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화살은 분명히 날아올 것 같기는 한데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법보다는 이를테면 지역균형지원과 관련해서는 7기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예술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고른 지역안배 결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 장치를 놓고 특정사업의 경우에는 신청률 대비 선정률이 유지되도록 미리 권고하고 실천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것이 일종의 성과인데요.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대로 모든 지원사업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내용이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고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도 장치를 열 것인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56호 2022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2022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정숙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15시 24분 정정숙 위원 회의참여)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957호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전차 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렸고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조정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문체부 부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의 수입 및 지출규모를 보시게 되면 총 4,800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739억이고 그 외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복권기금, 체육기금 등을 모두 합친 정부내부수입 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3,240억 정도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96억이고 기금 운영비가 244억, 복권위원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정부내부지출이 17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제도약을 위해서 2023년도 역시 예술창작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 예술 창작여건 안정화를 위한 증액을 하게 되었고 총 81억입니다. 올해 대비 19.1%가 증가 되겠습니다. 문학창작육성은 2017년도에 26억 원의 규모였고 올해 증액해서 45억 원의 규모였는데 내년에 문예지지원 등이 반영돼서 50억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각예술창작육성도 2017년에 29억, 30억대의 규모에서 올해 47억 규모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63억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육성도 올해 312억 정도의 규모에서 358억 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예술다양성증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억 규모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5억으로 15억 2,000만 원이 증액하여 부처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작여건 안정화를 위한 것이 제 1순위 편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후원, 매칭펀드 확대와 후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예술후원을 활성화하자는 부분이 반영되어 이 부분이 55억 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문화바우처 사업 등은 예산을 축소함으로써 창작과 향유 간 예산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기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유지원은 13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6.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은 2022년도 기준 481억으로 13.2% 에서 2023년도에는 610억으로 17% 정도로 확대되고 향유지원은 62%에서 59% 정도의 비중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전입금은 올해 대비 16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예기금에 전입되는 체육기금은 우려를 줬습니다만, 165억 원이 올해 기준보다 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176쪽의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비가 올해 3,655억 규모에서 3,596억 정도로 60억 정도가 감액되는데요. 이것은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향유사업이 감액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을 보시면 예술창작지원이 올해 534억 원 볼륨에서 610억 정도로 76억 정도가 증액 되는 것이고요.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학창작육성 쪽에서는 문예지발간지원과 사이버문학광장 시스템 개선 종료소요를 청년세대의 문학활동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유에 해당하는 문학주간사업도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시각예술창작육성은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공간지원사업을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육성에서도 국회지정사업은 모두 순감시키고, 대관료지원사업이나 민

간공연장제작극장화 지원사업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법정사업평가결과 국제예술교류지원이 감액 결정이 났습니다. 당초 20% 감액 요청이 왔었는데 10% 수준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은 올해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은 올해 대비 76%가 증액되는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인력육성은 올해 수준에서 감액 소요를 빼고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집 관련해서는 내진공사 진행소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특이소요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특별 용자지원사업이 50억 정도 있었는데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권위원회에서 순감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지원이나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재교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증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80쪽의 정책 및 기부활성화 쪽을 보시면 인권위 권고에 따른 NCAS 인프라 개선으로 기초문화재단이나 타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소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 예술위원회 설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문체부 부처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 내용이 있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올해 263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인원을 축소하고 단가는 11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도 이후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은 소폭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오늘 의결에 준하는 보고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의결안건인 제957호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매우 중요한 의결 수순입니다. 의결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계속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지금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해도 향후 여러 차례 변수가 생겨서 국회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변수를 만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의결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중열 위원 :** 전반적으로 기조를 보면 기초예술창작여건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라고 적혀 있고, 실질적으로 창작지원이나 인력육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공연활성화지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감액된 국회지정사업을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극복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연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동일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결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키고 함께 몇 가지 답변을 듣는 수준으로 갈까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바우처와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저희들 공연이나 전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문구류 등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11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죠. 통합문화이용권의 증액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었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이 설명해 주시죠.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보다 새 정부의 복지확장 정책에 힘입어서 문화부에서 증액에 대한 소요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5년 동안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게 인수위원회에서 안으로 나왔는데 아마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1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그러면 주요한 사용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부정 등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나 수사 의뢰를 하는 선에서 되고 있고요. 사용처 부분은 처음에는 예술 쪽만 있었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게 체육과 관광까지 합쳐지면서 조금 넓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부정사용에 대한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출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수입부문입니다. 우리 적립금 규모가 800억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입구조에 보면 여유자금회수가 8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00억대로 가다가 처음으로 800억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권기금이 1,700억 규모인데 국회 등 다른 쪽에서는 20% 수준인 300억에서 400억 정도 수준을 기금으로 부담하라는 요구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의 재정자립도 개선은 더 요원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재원대책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광기금 자체가 이쪽으로 유입되던 경로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작업들도 계속 병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관광진흥기금의 수입 말고 문화부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도 예산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되었지만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전략적으로 문화부와 접촉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방향을 같이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액수를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지만 실제 사업구현에 이르지 못했구요.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요약한 대로 향유사업

의 재원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을 일부 부담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금적립금이 문제인 정부 출범 직전 시기와 유사한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과 빨리 공유하고 저희 위원회로서도 최대한 통로를 열고 기금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기금 재정 강화를 요청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서 전고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정중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기초예술창작과 관련된 총 지원기금은 담보상태가 아니냐는 지적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냐는 2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조금 더 의견을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초예술창작과 관련된 예산의 담보문제와 포스트코로나 문제와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본부장들의 의견을 보태는 것으로 깊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현장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증액의 규모나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기재부, 문체부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증액 설득을 해 나가고 협의의 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부처안의 단계에서 이 정도 반영된 것은 2021년에 2022년을 편성할 때보다는 조금 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부족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향유 예산 관련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예술 향유로 연계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해결과제입니다만, 규모가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할 때도 향유 예산의 키 맞추기라는 명분을 통해서 창작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논리들을 펼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총량의 확대와 단절되었던 수입구조의 복원 측면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기금이나 경륜·경정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금에 대한 전입은 자체수입구조가 늘어나야 결국 사업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확대와 창작 예산의 확대를 유념해서 예산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연착륙 사업에 대해 말씀을 더 해 주시죠.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 중인 사업구조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시죠. 저희가 가진 장치들이 지금 현재 추경도 진행 중인 것이 있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른바 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연착륙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큰 규모, 보다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손상된 예술계가 재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되는 빠른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 있게 사업 확장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요. 그래도 체육기금이 안정적으로 확충되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의 수입구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체육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정정숙 위원님도 재원안정화 TF에 참여해서 예술정책과와 체육기금의 안정적인 전입을 위한 법정 배분비율을 법령에 반영하자는 요구들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체육기금이 2023년도의 전입규모가 공약에 있던 것과 같이 “소폭이라도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법정 전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것 이기는 하나 코로나19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예술창작 여건을 안정화 시킨다는 면에서 문학을 위시한 기초예술창작여건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면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설혹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를 넘어서 기재부 그리고 국회까지 가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몇 가지 한도 외 값이지만 다양성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고 정정숙 위원님이 포함된 재원 TF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기금의 큰 위축 등을 벗어나기 위한 기금 간 전입 등의 통로가 열렸다는 부분들도 오늘 우리 회의에서 짚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를 종결하도록 할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957호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19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예술창작여건을 안정화 한다는 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말씀과 손을 들어주셔서 다수의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반대의사가 없었으므로 제957호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모든 의결사항을 소화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토

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제 333차 위원회 회의의 보고사항은 2022년도 법정사업평가 결과보고, 제 28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제13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보고, 코로나19대응 TF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제13차, 제1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 제8차, 제9차, 제10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 제15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 등이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창호 부장이 나주 본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데 먼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차례대로 받고 해당 위원장님과 TF 팀장님으로부터 추가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TF나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부장은 소위원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28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개의 회의안건이 있는데요, 소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활동보고서 내용이 있었구요, 7기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6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이 8기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잘된 부분은 분명히 일하는 소위원회였고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아젠다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적 범위를 좁혀서 시도한 부분입니다. 아쉽다는 것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연계 그리고 사무처와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22일에 마지막 정책혁신 소위원회를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때 맞춰서 활동보고서 내용의 정리와 합

계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활동은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보탬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함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따로 갖더라도 제13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보고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13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5월 6일에 진행되었고 이 당시 회의안건은 5월 9일에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준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내용 협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문예진흥기금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희 위원님과 정정숙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소위원회 외 부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의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보고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는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는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4페이지의 발제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현장예술가들도 오셨고 저도 참석해서 예술위원회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토론 4번인데요. 여전히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사각지대 중에서 사각지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근거에 기반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론화 테이블은 저희 아르코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발표 및 토론문은 아르코 홈페이지에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 TF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사실 코로나대응 TF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의 변화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대응 TF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예술창작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대응 TF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5월 4일에 가졌습니다. 역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을 했고요. 199페이지의 토론회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생태계 자율성 복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예술계의 대응과 제도적 반성 등이 있었고요.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 노력을 위해서 예술계 공제기능 도입에 대한 기초 논의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재난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나의 세션씩 사회를 맡아주셨고 관련된 발제 내용도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내용 역시 아르코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발표 및 토론문은 아르코 홈페이지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TF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차, 제14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개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5월 12일 위원 간담회가 있기 전에 TF에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블랙 TF 활동보고서 작성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TF 활동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14차 TF 회의가 어제 개최가 돼서 보고안건으로는 올라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활동보고서에 대한 목차별 초안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소위원회가 서면의결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14차 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TF 회의는 종료를 하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TF 회의는 TF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위원회 보고안건으로는 1차 소위원회로 보고가 될 예정이고요. 위원 구성은 기존 정정숙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에 더해 정종열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은 없고요. 기존에 오영주 원장과 제가 위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을 정리해서 사무처 자격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오영주 위원은 참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행협치추진단이나 기존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TF 회의에 참석한 팀장님께서 혹시 더할 말씀이나 추가 보고를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정 위원님께서 잘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노조위원장님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김효은 노조위원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김효은 노조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예. 정회 상태에서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회 상태에서 정리한 내용을 흥태팀 위원님께 발언 부탁을 드렸는데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정회 상태에서도 대내소통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감이 있으셔서 206페이지의 대내소통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소위원회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성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대내소통의 영역을 정말 자율적으로 맡겨주시고 과제의 범위에서는 좀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 보고자료에서도 정리가 된 것처럼 저희를 피해자로서, 동료로서 소통하고 싶다는 의제를 표명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저희는 사무처 직원으로서 조합원은 위원님들과 업무 간에 위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건 하나에 국한해서 저희가 동료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심지어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정회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 차수 보고안건에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단 한 분의 위원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럴 때 정말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런 것도 저희로서는 신뢰감이 안 가는 영역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간접대상자였는데 저희 직·간접대상자인 직원들 중 다수는 주임, 대리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장, 차장 등 조직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매뉴얼에 대한 유감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강의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무처 내부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더질까봐 걱정하고 우려하셔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허리조직에 있는 지금 현재 과·차장 직원들이 저희 간부님들도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내밀하게 “어느 순간에도 공정과 정의감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배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한테 내밀하게 소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의나 매뉴얼 같은 방식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뭔가 고민하시거나 고민의 흔적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진짜 저희를 동료고 피해자로 바라봐 주실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외부 소통은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8기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업적과 노력 같은 것들을 이어가실 수 있는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만해도 그 당시 시점에 카카오톡을 제외한 모든 SNS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생계유지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업무는 과중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간이 일정정도 지나서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겠지만 저희 사무처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 사무처 내부직원들이 그런 민감성을 낮출 정도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데요. 이게 계속해서 테이블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위계적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걸 제가 겨우 보고자료에서 볼 수 있고요. 제

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직접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소통을 하시지 않고 이게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 특히 조합원들을 대하는 태도 등도 위원님들이 블랙리스트 TF를 잘 넘겨주시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만약 활동보고서 내용에 8기 위원들에게 제언하는 대내소통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수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제 23대 집행부 집행임원인 저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238명의 노동조합 자격 대상이 있는데요. 13인을 제외하고 거의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십니다. 저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입장에 이견이 있으신 직원은 단 한분도 없었고요. 실제 직·간접적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저희를 좀 헤아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노조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외소통과 대내소통이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넣었던 것이고요.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관련한 불신 상태까지 있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8기에 넘겨주는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내소통과 관련해서는 “노조 쪽에 일괄한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노조위원장의 의견은 회사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니만큼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무처 직원 대다수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위원회와 TF, 소위원회를 잘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8차, 제9차, 제10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를 연이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08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4월 21일, 4월 28일, 5월 13일에 8차, 9차,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함께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례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제시했던 정책연구 부분이고요. 8차, 9차, 10차 모두 정책혁신부의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과업설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고요. 10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과업지수를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입찰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논의했던 부분은 9차 회의에서 TF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고요.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9차, 10차 회의에서

포럼과 관련된 준비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검토 의견에서도 정정숙 위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다원예술 포럼은 6월 2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술가의 집에서 현장 진행이 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 포럼의 진행사항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이후에 저장하여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혹시 TF 팀장님께서 위원회에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어제 회의가 있었고요. 어제 회의는 포럼과 관련된 회의였는데요. 일단 책임자인 팀장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발표가 나가고 나서 포럼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달라고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로 했고요. 지금 TF 내에서 추가적인 공모가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97% 정도 탈락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월요일에 결과발표가 나가고 나올 때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사무처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중관 위원장 :** 급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도 내와 한도 외의 모든 가능한 장치를 동원하여 예산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회계연도 내에도 말씀하신 대로 연도 중반에 어떤 변수가 있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을 현장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이를 위해서 7기 위원회가 위원 역할을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예산과 사업에 관해서 미리 예단하여 약속드릴 수 없는 행정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15차 청년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부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216페이지 제15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차 회의는 5월 16일에 개최가 되었고요. 위원 5인이 참여하셨습니다. 회의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예술제언 영상 추진 현황 공유 및 확산 방안입니다.

저희가 미래예술제언을 9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청년예술가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회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테이블입니다.

6월 10일에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저희 예술위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 담당자들이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예술 TF의 활동경과를 담은 백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3일에 국회토론회를 유정주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박경신 이대교수님과 홍태림 위원님 그리고 문광위원회 김혜인 연구원, 소위원회의 이산, 이진명 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예술 TF는 앞으로 6월 12일에 라운드테이블, 6월 20일에 1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은 종료 예정이고 각종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년예술 TF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소위원회와 라운드테이블, TF 회의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제 13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코로나19대응 TF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제13차, 제1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결과, 제8차, 제9차, 제10차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 제 15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를 포함한 7개의 소위원회와 TF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7기 위원회의 임기가 마침내 종료된다면 7기 위원회의 대표적 성과로 의미 있는 소위원회 활동과 TF 활동을 통해서 위원회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합의체 정신이 잘 구현된 점이 성과로 기록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TF와 소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위원님들, TF 팀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7개의 소위원회와 TF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를 모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마지막 보고사항이 남았습니다. 2022년도 법정사업평가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주요 법정사업평가는 2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그리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연장평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는 예술창작역량강화는 ‘보통’, 지역문화예술진흥 ‘우수’, 예술향유 기회확대 ‘보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보통’ 이상의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연장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은 ‘감축·변경’의 결과가 나왔고요. 예술인력육성도 ‘감축·변경’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술정책 및 기부 활성화와 문화예술향유지원은 사업방식의 일부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나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하게 되면 집행률이고, 보조를 받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모두 높아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요. 국제교류지원 같은 경우 보조금을 모두 집행했습니다만, 국제교류의 여건 때문에 보조를 받은 예술단체에서 집행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1월과 2월에 쓰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재교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정적으로 무용분야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10% 감액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84쪽입니다.

평가결과 주요 의견은 예산집행률과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장평가에서도 3년간 집행률이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심의 등을 서둘러 진행하여 예술단체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실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부담 의무에 대해서 강화를 하라는 것이 요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민간의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높이라는 게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출지표보다는 성과를 더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노력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 주요 평가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시면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부정적인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요. 보조사업연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예술교류지원에 대해서는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지원에서 공연예술창작육성을 전체적으로 10% 감액하라는 요구가 2차 심의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소명하고 대응해서 공연예술창작육성은 결과적으로 최종평가 감액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창작육성 중에서 올해의 신작 등 사업기간이 1월이나 2월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방향은 연간 사업별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부나 전체 사업부서가 주마다 집행률 모니터링이나 조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법정사업평가 결과를 조직 내에서 환류하고 개선활동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평가후속 관리방향은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지표 개선이나 집행률 제고,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관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기획조정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자부담과 관련해서는 자부담 10%를 확실히 지키라는 표현보다는 전체회의 자료집에는 유예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멘트로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확실히 지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부담을 유예시키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정정숙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 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

유, 그러니까 예술계의 코로나 상황에서 왜 유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필요성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논리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법정사업평가 결과를 받고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문화예술진흥 같은 경우 작년에 ‘미흡’인 지표가 올해는 ‘우수’로 올랐고요. 표현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보통’을 받으면 예산이 줄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터전에서 내년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가 고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견지하면서 함께 견뎌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값이 우수하거나 보통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일단 크게 안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잘해야 합니다. 물론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한다는 것에는 저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깊은 공조 속에서 평가 값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한해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 정도 성과를 결과 값으로 손에 쥐게 된 사무처의 노고에 대해서 별도로 치하를 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 시간에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보았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2022년도 주요 법정사업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보고를 접수할까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9개의 의결사항과 8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다 소화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회의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3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폐회)